

# 비로소 한자리에 모인 한국출판의 精華

## ‘삼성출판박물관’ 개관...국보급 비롯해 소장품 10만여점에 달해

1천3백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출판인쇄문화의 변천과정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지난 6월 29일 개관한 ‘三省出版博物館’(영등포구 당산동 6가 340-2)에는 신라, 고려시대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9만5천여권의 희귀도서를 비롯 고찰자, 인쇄기, 문방사우 등 출판관련 자료들이 소장돼 있어 무구정광다라니경 이후 현재에 이르는 출판인쇄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성암고서박물관이나 흥덕사지인쇄사료관, 일본의 인쇄박물관, 독일의 구텐베르크기념관 등이 어느 한 부분만의 발달사를 엿볼 수 있다면, 이의 경우 출판인쇄관계 전부분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자못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 미공개 문화재도 수집됨

삼성출판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책 및 자료는 총 10만여점. 이중 양장본이 7만여권, 그 이전의 古書가 2만5천여권, 이밖에 목판, 금동연적, 금속활자제조용 도구, 책거리무늬능화판, 운장대 등 관계자료 5천여점이 소장돼 있다. 여기에는 보물로 지정된 3점의 국보급 유물 외에도 40여점의 문화재급 귀중품이 포함돼 있다.

특히 보물 758호인 「남명천화상승증도가」(1239년)는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경(1377년 간행)보다 140년 전에 이미 금속활자로 도서를 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서」보다는 200년이나 앞서있음을 보여주는 세계적 보물. 또 연화대 위에 정좌하고 있는 석가불 옆에서 설법을 청하고 있는 제자 수보리의 모습을 정교하게 묘사한 「금강반야바라밀경」(보물 877호), 국내 유일본으로 훈민정음 창제 이후 최초로 편찬된 佛書 언해본으로 불교학과 국어학 및 서지학 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자료인 「월인석보」 권22(보물 745호) 등은 모두 국보급들.

이외에 미공개 문화재급으로, 지금까지 온전하게 보존된 것이 몇 되지 않는 초조대장경 중 관각술과 인출숨씨가 뛰어난 「초조 대방광불화엄경」(주본 제13권)과 자주빛 종이에 금물로 화려하게 變相圖를 그려놓은 「상지금니 대광불화엄경」(권69 1첩), 역시 쪽빛물을 들인 종이에 은물로 그린 「감지은 묘법연화경」(권21첩) 등은 이번 개관과 더불어 첫선을

보는 것으로 박물관측은 이들 소장품에 대해 문화재지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 일제하 출판탄압 보여주는 자료들도

1층 80여평 전시실에서 개관과 더불어 일반에 공개된 소장품은 모두 250여점. 무구정광다라니경 복제본을 비롯, 국보급 유물 10여점과 종이전과 1000년 역사, 종이뜨는 과정, 활자제작과정, 출판관계 서류, 작가들의 육필원고 등을 전시, 출판인쇄문화 발달사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했다.

**지난달 29일 개관한 삼성출판박물관에는 신라, 고려시대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희귀도서를 비롯해 고찰자, 인쇄기, 문방사우 등 출판관련 자료들이 소장돼 있어 무구정광다라니경 이후 현재에 이르는 한국출판의 발달사를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다.**

1500도의 온도를 견딜 수 있도록 흑연으로 만든 도가니와, 여기서 끓은 납물을 활자제조틀인 ‘용범’에 붓고 나중에 가지쇠 끝에 납활자가 주렁주렁 달려나오는 과정을 소개한 금속활자 만드는 장면은 재미있는 볼거리.

또 아름다운 함이나 투갑에 넣어둔 「국조보감」(1782) 「창하집」(1700년경) 그리고 오동나무나 기름먹인 종이를 이용, 책의 파손을 막았던 「책함」 등은 우리 선조들의 도서보관예지를 엿볼 수 있는 유물들이다.

주로 四書類나 祭日 등을 기록, 도포 소매에 넣어다니며 찻잔이 볼 수 있도록 만든 소형도서 ‘수진본’과 250여 전시품 중 가히 白眉라 할 ‘웃본’은 우리네 한복의 다양한 종류로 인해 까다로운 재단법을 모범유흥에 일일이 적어 시집가는 딸에게 들려보낸 것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오래도록 머물게 하는 전시품. 그리고 조선조 부녀자들 사이에 패물이나 그릇 등을 맡기고 책을 빌려보는 관습이 전해내려왔음을 보여주는 ‘貸冊’ 표시의 책도 눈길을 끈다.

또한 일제하 출판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로, 조선총독부 경무총감이 만해 한용운에게 내준 「채근담」의 출판허가증(1915년),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일간잡지인 「청춘」 속간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삼성출판박물관 개관식 장면.

호에 찍힌 납본인 등은 비록 허가증을 받더라도 책을 납본할 때는 반드시 원고를 첨부, 책과 다시 대조하는 검열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의 출판통제가 얼마나 극심하였는지를 짐작케 하는 자료들이다.

육당 최남선, 춘원 이광수, 위당 정인보 등의 친필원고와 「개벽」(1922년 신년호) 「문장」(1940년 3월호) 등의 문학지, 「옥루몽」 「치악산」 등의 소설들도 전시돼 있어 근대문학의 현장을 살필 수 있다.

### “선조에 대한 자긍심 심고 싶었다”

이처럼 한자리에서 세계 最古를 자랑하는 출판인쇄의 역사와 조상들의 문화승상의 덕을 기려볼 수 있게 된 데에는 한 출판인 형제의 25년여에 걸친 집념에 찬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이란 긍지를 자라나는 세대에게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이같은 자긍심을 갖고 책을 아끼고 사랑하던 조상들의 슬기를 후세들이 배우고 또 이를 통해 책에 대한 관심을 높여 독서운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출판인으로서의 소망도 잊지 않고 내보이는 김봉규(삼성출판사 회장)·종규(삼성출판사 사장) 형제.

지난 51년 ‘서점’ 운영에서 시작해 63년 삼성출판사의 설립, 60년대말로 접어들며 각종 기획물이 연이어 성공을 거두며 출판사가 제 자리를 잡자 이들 형제는 업종과 걸맞는 출판박물관을 하나 세워보자는 또 하나의 소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료수집에 나섰지요. 배낭을 메고, 혹은 차를 몰고 전국 방방곡

곡 안다녀본 곳이 없습니다. 일본 출장시에는 반드시 고서방을 들렀다 왔지요. 여태 그 흔한 골프채도 쥘 줄 모르고 여기에 묻혀 살아왔지만 어려운만큼 재미도 큼니다. 가격이 벽차사지 못했을 땐 밤잠을 설치기까지 하지만 묘하게도 인연따라 다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소장이 아니고 출판박물관을 하겠다니 싸게 준다던 훌륭한 장사꾼도 있었고, 지난 79년에는 해인사주지를 지냈던 효당 스님께서 세종때의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주시면서 5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귀한 책이 그 박물관에서 비로소 빛을 보고 다시 숨쉴 수 있으므로 그냥 기증하겠다고 하셨을 땐 감격스러웠습니다.”

동생 김종규 사장은 기존의 진열·전시 중심의 ‘유물보존’의 박물관이 아닌 살아숨쉬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각종 자료를 필요로 하는 학자나 학생들에게 직접 열람, 복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3~4개월 단위로 특별기획전, 관련세미나 등도 열 계획이라고. 예를 들어 한말~70년대까지의 교과서전, 잡지창간호전, 여성관련도서전, 기독교도서특별전 등 책의 변천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특별기획전들이 그것.

1층 전시실을 비롯, 1·2층 200여평 크기의 서고, 세미나실·영상관람실, 그리고 건물옥상에 3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민속공연장 등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대시설도 마련해 놓았다.

개관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입장료는 무료이다.(697) - 4597.

— 정혜옥 기자